

성경이 보는 남녀 평등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

2015년 / 2023년

영어에서 독일어로 번역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필립 바턴 페인(Philip Barton Payne)의 친절한 허락을 받음

독일어판 교정: 볼프강 클뢰크너(Wolfgang Klöckner)

줄츠베르크(Sulzberg), 2026년 10월

제2판, 검토 수정판(초판 2023년 7월)

이메일 주문

hj-ronsdorf@t-online.de

전화 주문: 08376 929643

독일어판 책자 1부 3.80유로, 배송비 별도

www.hans-joerg-ronsdorf.de

ISBN 978-3-9820715-8-9 (독일어판)

차례

1 머리말

21세기에도 신앙고백을 중시하고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별이 하나님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결혼에서 차이를 만드느냐 하는 주제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격렬해서, 마치 복음의 핵심 진리나 성경의 권위가 걸린 문제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해 두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밝혀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남자에게 여자보다 앞서는 지도적이거나 우선적인 지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여자는 남자도 교회도 가르치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회와 회중은 끊임없이 이 주제와 마주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남자에게 지도하고 가르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성별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두 견해를 함께 실천하는 것은 거의 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자주 그곳에 갔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봅시다.

신학자이자 언어학자인 필립 B. 페인은 우리를 성경을 따라가는 짧은 여행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이 주제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읽어 보십시오. 그는 이 주제에 관해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¹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자에는 2015년에 잡지 *Priscilla Papers*²에 실린 논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일어판을 위한 저자의 머리말(「나의 오디세이」)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발견도 다룹니다.

이 작은 책의 제목은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지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 책은 평등주의적 창조 질서를 짧게 요약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같은 책임을 집니다. 성별에 따른 모든 위계적 불평등은 비성경적이라고 거부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예전에 이른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견해를 지지했던 남자들이 쓴 책들이 나왔습니다(끝부분의 추천 도서를 보십시오). 이 견해는 교회에서 오직 남자만 이끌고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저자들은 이제 상호보완주의적 견해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사회가 무엇을 좋아할지, 또는 어떻게 문화에 영합할 수 있을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 거듭 묻고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한목소리였습니다. 성경은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남녀 평등을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에덴의 비밀은 두 성이 각자의 서로 다른 강점을 함께 내놓는 데 있었습니다. 하와는 눈높이를 같이하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아담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서열로 생각하는 것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기독교의 색을 입고 있지만, 고대의 세속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진리로 내세워져 왔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질서는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했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모든 사회적 차별을 끝냈습니다. 영원히. 교회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성별의 차이는 더 이상 불이익이나 분리, 위나 아래의 서열을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의 차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특징들은 더 이상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문화와 나라에 따라,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차이를 만들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호보완주의적 견해를 지지하고 그대로 살고 있더라도, 한번 편견 없이 필립 B. 페인의 생각을 따라가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생각을 바꾸어야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꾸준하고 깊이 있는 성경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거의 5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변화해 온 과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더 모아 두었습니다: www.frauen-vergebt-uns.de

필립 B. 페인의 말을 듣기 전에 덧붙입니다. 이 주제만큼 많은 사람에게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드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롬 14:5). 그러나 분명히 사정이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하고, 그 가정이 이쪽이나 저쪽 방향으로 이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객관성을 지키고, 귀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고, 논거를 잘 세우며, 회색인 곳, 곧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두세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증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 진리를 우리 구주이시며 하나님인 분의 입에서 듣게 될 날이 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잘못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Hans-Jörg Ronsdorf, 아우크스부르크, 2023년 6월

2 나의 오디세이

제가 자란 교회는 오직 남자들만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제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트 허먼(Mount Hermon)의 레드우드 캠프(Redwood Camp)에서 제가 이 고민을 청소년 지도자에게 털어놓자, 그는 저에게 요한복음 3:16을 읽게 하고는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 보렴.” 그다음에도 똑같은 두 질문과 저의 똑같은 두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 보렴.” 이번에는 마침내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써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저를 덮었고, 그 기쁨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딤후 1:2). 저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참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웬선교회(Operation Mobilisation, OM)와 함께 지내던 때에,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 조엘(Joel)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대신, 선교 단체 TEAM(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과 함께 14개월 동안 일본에 갔습니다. 저의 목사님인 가시오카 선생(Kashioka Sensei)은, 일본의 복음주의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신약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그것도 가능하면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공부한 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한 가지 반론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답을 주지 못한 유일한 반론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모순되어 보입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이들은 뿌려진 자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겉보기의 불일치가 “뿌리다”라는 아람어 동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뿌러지는” 것은 씨입니다. 아람어에서는 보통 씨가 뿌러지는 대상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뿌려진 자들이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씨를 받는 여러 종류의 땅에 비기는 것입니다. “뿌려진”이라는 말의 이런 용법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그 해석은 헬라어를 쓰는 교회가 지어낸 것일 수 없으며, 그 해석이 예수님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발견은 New Testament Studies 26 (1979-80), 564-568쪽에 실렸습니다.

제가 케임브리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강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약의 어떤 구절도 그 본래의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저는 디모데전서 2:12가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고 생각했기에, 하마터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디모데전서를 헬라어로 읽으며 그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이 편지를 헬라어로 거듭거듭 읽은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의 거의 모든 문장이 첫 단락에서 거짓 교사들에 관해 언급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으로 오직 여자들만 언급합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함부로 차지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디모데전서 2:12의 표현과 그 역사적 문맥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위기에 대한 지시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12를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로 이해하면, 그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 특히 바울 서신들과 조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거듭 “여자들”, “모든 사람”, 또는 “누구든지” 가르치거나 예언하라고 명합니다(고전 11:5; 14:5, 24, 26, 31, 39; 골 3:16; 딤후 3:1-2; 딤후 2:3; 딤후 2:2; 참조: 히 3:1, 12; 5:12). 바울은 남자들을 가르친 많은 여성을 높이 평가합니다(롬 16:1-12; 행 18:1-7, 26). 그 가운데에는 유오디아, 순두게(빌 4:2),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딤후 1:5)도 있습니다. 이들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딤후 3:15). 이 가르침이 언젠가 멈추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동료 누가는 예언하는 빌립의 네 딸에 대해 씁니다(행 21:8-9). 마태복음 28:19-20에 있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온 교회를 향한 것이며(참조: 눅 24:33, 47-53),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심지어 여자들을 통해서도 영감된 성경을 계시하셨습니다(출 15:21; 사 5:2-31; 삼상 2:1-10; 25:24-31; 잠 31장; 눅 1:25, 42-55). 이 모든 것이 보여 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12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로 의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령께서 이 구절을 그런 뜻으로 영감하셨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2.1 새로운 발견의 네 가지 예

나중에 저는 제가 여성의 사역을 제한한다고 여겼던 다른 구절들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들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책자에 이어 실린 요약 논문이 2015년에 나온 뒤에 제가 새로 발견한 것들도 있습니다.

1) 디모데전서 2:15는 여자들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의 두 절에서, 하와가 속은 일과 그녀의 타락을 다루는 창세기 3:13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창세기 3:15가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15에서 타락에 대한 같은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출생(*tês teknogonias*)을 통하여(*dia*)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은 앞에서 타락을 언급한 것과 뚜렷이 대조되며, 뒤따르는 조건, 곧 “만일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직 “각 사람”이라는 주어만이, 단수 동사(“구원을 받을 것이다”)에서 복수(“만일 그들이 ...

거하면”)로 바뀌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모든 곳에서 “구원하다”(sôzô)와 그와 관련된 단어들은 영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2에서 바울은 정확히 같은 구문(sôzô의 수동태 + dia + 소유격)을 사용하여 구원의 수단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게다가 바울 이전의 헬라어 문헌에 나오는 teknogonia의 세 용례는 모두 한 아이의 출생을 가리킵니다. 그 어느 것도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는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출생”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단수 명사 앞에 관사가 붙은 경우는 예순한 번입니다. 그 가운데 쉰다섯 번은 분명히 특정한, 하나뿐인 것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뜻으로 쓰인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딤후 4:8). **그러므로 “그 출생”을 특정한 한 출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출생이 구원의 수단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탄생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반 서신의 독자들이 이 암시를 이해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특별히 “디모데에게”(1:2), 곧 잘 훈련된 자신의 사절에게 썼습니다. 이것은 편지 전체에 걸쳐 나오는 “너”(2인칭 단수)라는 호칭의 많은 형태가 증명합니다. 딤후 1:3(2회), 18(3회), 19; 3:14(2회), 15; 4:6(4회), 7(3회), 11(2회), 12(2회), 13, 14(3회), 15(3회), 16(7회); 5:1(2회), 3, 7, 11, 18, 19, 20, 21(2회), 22(4회), 23(3회); 6:2(2회), 11(3회), 12(4회), 13, 14, 17, 20(2회). 디모데는 설교자였고(고후 1:19), 바울의 사절이었으며(고전 4:17; 16:10; 살전 3:2, 6;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동역자였습니다(롬 16:21). 바울은 자신의 여러 편지의 첫 절에서 그를 자신의 서기로 언급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받아 적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이 문맥에서 “그 출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결혼에서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헬라어 관용 표현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예: 딤후 3:2)과 “한 남편의 아내”(예: 딤후 5:9)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배우자가 남자일 수도 있는 경우에는, 헬라어 어법상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형태를 써야 했습니다. 티머시 프리버그(Timothy Friberg)는 신약에서 여자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문법적 남성형을 7,500개에서 8,000개 사이로 셉니다(거의 한 문장에 하나꼴입니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us)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관한 그의 열한 번째 설교(PG 62,545 이하)가 보여 줍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3:12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 집사들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믿었지만(NPNF1 12:151.4),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헬라어 관용 표현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일부일처제”라는 말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은 여자를 감독(딤후 3:2), 장로(딤후 1:6), 집사(딤후 3:12)의 직분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3) 디도서 2:3에 따르면 “여성 장로들”은 성소의 섬김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여성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은 “여성 장로들”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여성 장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 장로들”을 뜻하는 단어 presbytidas는 나중에 “여성 장로들”의 임명을 금지할 때 쓰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³ **바울은 여성 장로들을 묘사하기 위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여성 교사들”(kalodidaskalous)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디도서 2:4-5에는 여성 장로들이 가르쳐야 할 것의 예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의 어디에서도 여성 장로들이 젊은 여자들만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4) 베드로전서 3:7에는 주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는 베드로가 “복종하라”를 뜻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로써 앞에 나온 복종하라는 세 가지 권면과 평행을 이룹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2:13)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2:18)

“아내들아 이와 같이 [homoiōs]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3:1)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7은 이렇게 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homoiōs] 너희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지식을 따라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더 연약한 여성의 [BDAG 208, *gynaikēios*, ‘여성의’. 이 말은 ‘함께 상속받을 자와 연결되어 그녀가 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릇으로 인정하며, 생명의 은혜로운 선물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그들에게 존귀를 아낌없이 베풀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해 동안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제가 일본에서 복음자유교회(Evangelical Free Church)의 선교사로 일할 때, 저는 주님께 제가 발견한 것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스물네 시간 안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복음자유교회의 총재 A. T. 올슨(A. T. Olson)이 저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협의회의 의장이 저에게 교회 지도직의 여성에 관한 글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글러스 J. 무(Douglas J. Moo)의 논문 한 편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⁴ 그 논문 70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속임에 쉽게 넘어가는 여성의 성향은 그들이 공적인 가르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 여성이 본성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활동들이 있다.” 이 분명한 기도 응답은 저에게 한 논문으로 무에게 응답할 자유를 주었습니다.⁵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제 글이 여성들을 열매 맺는 사역으로 자유롭게 했다고 저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온 세계와 여러 기독교 전통의 학자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넘치도록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를 발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50년의 연구 끝에도 저는 성경의 원문에서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는 구절을 아직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의 연구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오류가 없다는 저의 신뢰를 더 굳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2.2 남녀 평등은 중요한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가 분열될까 두려워 노예제에 대해 성경적인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노예제와 싸우지 않은 것이 끔찍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종 간의 화해를 위해 힘쓰고 인종적 불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위한 정의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별 위계 속에 들어 있는 편애에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위계가 역사 속에서 일으킨 여성 억압에 반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와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 나라의 전진에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결혼 안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신중한 분석이라는 힘든 수고를 들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의 부정확한 번역과 특정 본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이 여성 학대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로 수백만 명이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성경이 여성을 억압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성경을 미워합니다. 성경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여성들의 많은 예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섬김을 위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섬김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성의 사역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복음 선포를 제한하고, 성령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맞서며,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권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많은 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합니다.

3 성경은 남녀 평등⁶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성별 문제에서 일관성이 없습니까? 존경받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성경이 성별의 평등과 성 역할을 모두 긍정하며,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본문을 억지로 비틀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성경적 입장에 이를 수 있습니까? 좋은 주해를 조직신학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분명히 좋은 주해와 좋은 조직신학은 함께 갑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성별에 관한 본문들의 겉보기 모순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자체가 저의 이해를 바꾸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결혼 안의 성별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남녀 평등을 확증합니다.

3.1 구약의 여성들

3.1.1 창조에서의 여자와 타락 이후의 여자

창세기는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의 지도 아래 두지 않으시고, 서로 동등한 두 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⁷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함께 땅을 다스린다고 가르칩니다(창세기 1:26-27). 그들의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지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땅을 다스리는 일일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 이야기의 구조는 여자의 창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자는 자기에 맞는 동반자를 바라는 남자의 필요를 채워 줍니다(2:18, 20). 본문은 여자가 남자의 ‘ezer kənegədô로 창조되었다고 묘사합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에게 맞는 힘”입니다. 안타깝게도 ‘ezer라는 단어는 여기서 흔히 “돕는 자”(영어 helper, 독일어 Helfer)로 번역되는데, 이 말은 영어나 독일어에서 아랫사람이나 종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ezer는 결코 “종”이라는 의미의 “돕는 자”를 뜻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자기 백성의 구원자, 힘, 능력이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⁸ 성경 히브리어의 권위 있는 사전은 ‘ezer의 성경적 의미로 “도움, 지원, 능력, 힘”을 들지만, “돕는 자”는

들지 않습니다.⁹ ‘ezer는 세 번 군사적 보호자를 묘사합니다.¹⁰ 이 구절들 가운데 어느 것의 문맥도, ‘ezer로서 하나님이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고 결론짓게 하지 않습니다.¹¹

둘째 단어 *kēnegēdô*는 *kē*(...처럼) + *negēd*(앞에) + *ô*(그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을 뜻합니다. *negēd*와 관련된 명사 *Nāgîd*는 앞에 서는 사람을 가리키며, “(여호와에 의해) 지도자로 선포된 사람”을 뜻합니다.¹² 그러므로 ‘ezer와 마찬가지로 *kēnegēdô*도 아랫사람보다는 오히려 윗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의 ‘ezer *kēnegēdô*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종속된 조력자로 창조하셨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표현은 여자의 힘을 강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등한 동반자이며, 남자를 혼자 있음에서 구해 냅니다. 여자는 남자의 짝입니다. 곧 땅을 다스리는 일에서 남자를 보완하는 그의 동반자요 친구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함께 열매를 맺고 땅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에도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어디에서도 남자에게 여자보다 높은 지위나 더 많은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¹³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창조 기사는 한결같이 그들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깨닫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2:23). 그들은 같은 실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2:21-23). “부모”, 곧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열의 차이 없이 나란히 언급됩니다(2:24). 결혼 안에서 그들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2:24). 두 사람 모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순결을 함께 누립니다(2:25). 그들은 함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3:6).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릴 것을 엮습니다(3:7).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3:8). 이것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3:12-13).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가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 주십니다(3:9-13, 16-19). 두 사람 모두 자기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3장은 성별의 평등을 묘사하는 것이지,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권위를 주는 “창조 질서”¹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지배가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3:16이며, 거기서 그것은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로 묘사됩니다.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성 위계를 지지하는 저명한 사람들조차 이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인정합니다.¹⁵ 타락의 다른 모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쁜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남자가 창조 때부터 머리였다는 자신들의 이론과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 위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16이 남자의 여자 지배 일반이 아니라 **사랑 없는** 지배의 도입을 다룬다고 주장합니다.¹⁶ 그러나 본문은 사랑 없는 남성 지배만이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남성 지배 자체가 타락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16에는 “다스리다”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단연 가장 흔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 자체로 나쁜 지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에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나쁜 지배가 아닙니다! 두 개의 큰 성경 히브리어 사전은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의 모든 용례를 분석하며,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¹⁷ 이 단어는 나쁜 지배를 함축하지 않고, 단순히 “다스림”을 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타락의 결과이므로, 타락 이전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렸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에서조차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일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자와 동등하게 여자에게 주신 권위를 여자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남자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신의 권위 있는 위치를 여자를 학대하는 데 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창세기 3:15) 타락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의 비극적인 결과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3.1.2 구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여성들

구약은 남자들을 이끈 많은 여성을 높이 기립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내와 어머니도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도한 여성들을 보여 줍니다. 구약은 어디에서도 그들의 성별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은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미가 6:4; 참조: 출애굽기 15:20-21).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들, 곧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들 가운데 하나이며(사사기 2:16, 18; 4:10, 14, 24; 5:1-31), 여선지자요 온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4:4-5). 아내요 어머니였던(5:7) 그녀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바락에게 “가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었고(4:6, 14), 바락은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권위를 나누며 잘 협력했습니다. 바락은 군사령관으로, 드보라는 최고 사령관으로 일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하만의 집과 유대인의 원수 75,000명을 멸하게 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에스더 7:1-10; 9:1-32). 모르드개와 함께 “그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 에스더의 명령이 이 규례를 견고하게 하였더라”(9:29-32). 성경은 스바 여왕(열왕기상 10:1-13; 역대하 9:1-12)과 갈대아의 왕비(다니엘 5:10-12)를 높이 기립니다. “여왕/왕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왕”에 여성형 어미를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칭호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오직 칭찬만 받고 한 번도 비판받지 않는 사람은 세 사람뿐인데, 바로 이 세 여성입니다. 유다 왕들의 기록에서는 언제나 왕의 어머니인 대비들이 언급되거나 이름으로 불립니다(참조: 예레미야 13:18; 29:2; 열왕기하 24:15). 그 가운데에는 보좌에 앉았던 밋세바(열왕기상 2:17-19), 마아가(열왕기상 15:2, 10, 13), 느후스다(열왕기하 24:8)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그것에 관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고 그녀의 영적 지도에 따랐습니다. 왕과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녀의 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열왕기하 22:14-23:3; 역대하 34:22-32). 이스라엘의 남성 지도자들은 한 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열왕기하 22:14-23:25; 역대하 34:29-35:19).

구약의 어떤 본문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만 여자들에게 남자들에 대한 이런 정치적 또는 종교적 권위를 허락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은 어디에서도 성경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두 여성 통치자는 악했습니다. 아달랴(열왕기하 11:1-3; 역대하 22:10-12)와 이세벨(열왕기상 18:4)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도 대부분 악했습니다. 성경은 그들도,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여성 지도자도, 남자들에 대한 권위가 여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여성들이 한 번도 말지 않은 중요한 사회적 또는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방 종교에서는 여사제가 매춘이나 제의적 성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17이 그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변 민족들의 부도덕한 관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거듭 금하셨습니다.¹⁸ 여제사장은 바로 그런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상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출애굽기 19:6). 이사야 61:6은 하나님의 온 백성이 제사장이 될 때를 예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신약 교회에서 그분의 온 백성의 제사장 됨을 실현하셨습니다(베드로전서 2:9).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더 큰 예언의 역할을 맡기시려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11:29). 요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요엘 2:28-29). 이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사도행전 2:14-21).

하나님은 심지어 모든 예언의 임무 가운데 가장 큰 임무에도 여성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영감된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리암의 노래(출애굽기 15:21)와 드보라의 노래(사사기 5:2-31), 그리고 한나의 기도(사무엘상 2:1-10)가 포함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누가복음 1:25, 42-45)와, 성경에 대한 최초의 기독교적 해석인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에서입니다(누가복음 1:46-55).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이끄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분은 여성들을 세상의 지도 임무와 영적 지도 임무 모두로 부르셨습니다.

3.2 예수님과 여성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하셨고, 결코 아랫사람으로 대하거나 그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마 12:49-50; 15:38; 25:31-46; 막 3:34-35; 눅 8:21; 11:27-28). 그분이 여성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신 것은, 그 시대의 법적, 사회적, 종교적 관습에 어긋났습니다. 간음과 이혼처럼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던 법적인 문제에서,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덜 지적이고 덜 도덕적이라고 여기던 사회에서, 예수님은 여성의 지성과 영적 능력을 존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먼저 여성들에게 가르치신 위대한 영적 진리들이 보여 줍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요 4:10-26)와 마르다(요 11:25-26)에게 가르치신 진리들입니다.

여성의 종교 교육을 좋지 않게 여기던 문화에서, 예수님은 여성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을” 때 – 이것은 제자의 자세요 자리입니다 – 예수님은 그녀를 지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38-42).¹⁹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훈련받았고 대개 스스로 교사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제자는 언제나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를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믿음의 교사로 세우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보여 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 열두 사도의 무리에는 남자만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지도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로써 여성을 교회 지도에서 배제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이 교회 지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인인 유대인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로 이방인이나 종이 교회 지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어쨌든 초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행 15:13; 갈 1:19)²⁰와 바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두 사도에 속하지 않았지만 사도였습니다. 한 여성, 곧 유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²¹ 열두 사도 밖의 다른 사도들도 교회 지도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맡았는데, 왜 열두 사도가 교회 지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처음 열두 사도로 남자만 택하시고 여자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은 그분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두 가지 이유로 남자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상징적인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밤의 모임에, 특히 광야나 겔세마네 동산 같은 곳에 데려가셨다면, 도덕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진실성에 의지해야 할 열두 제자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자유인인 유대 남자 열두 명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곧 열두 지파에 대응하며,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곧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을 강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성 제자들도 택하셨다는 사실(위를 보십시오)도 보여 줍니다. 그분은 남자 열두 사도를 택하심으로써 여성을 교회 지도에서 배제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선교사는 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말이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믿는지라"(요 4:39; 참조: 4:28-4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찾아가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자신의 부활과, 곧 있을 아버지 하나님께로의 승천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습니다(요 20:14-18). "사도"는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도를 새롭게 규정하셨습니다. 곧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입니다(예: 요 13:3-17).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런 지도는 남자에게와 적어도 똑같이 여자에게도 합당합니다.

3.3 바울과 여성: 남녀 평등의 옹호자

바울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남녀 평등을 확증합니다. 그는 남자들과 나란히 사역하는 동역자로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그는 남녀 평등이 거기서 나오는 많은 신학적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녀의 평등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3.3.1 사역하는 여성에 대한 바울의 인정

로마서 16:1-16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 문안합니다. 그 가운데 열 사람을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릅니다. 이 열 사람 가운데 일곱 명이 여성입니다. 뵤되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16:1)이며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지도자"²²(16:2)입니다.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16:7)²³입니다. 브리스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16:3; 빌 4:3 참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는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16:6, 12). 고린도전서 16:16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2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 여성들을 그저 믿는 사람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지도자로 꼽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많은 신자에게 문안하지만, 사역의 지도자로 부르는 사람은 열 명뿐이고, 그 가운데 일곱 명이 여성입니다. 세 남자는 아굴라, 안드로니고, 우르바노입니다. 앞의 두 사람은 아내와 함께 언급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함께 지닌 권위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공적인 공동체의 지도자 가운데 이처럼 높은 비율의 여성을 언급한 것은 고대 그리스 문헌의 역사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여성들이 당시 문화로서는 이례적인 정도로 지도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줍니다.**

3.3.2 바울의 신학에서 남녀 평등이 나온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증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맡겨졌고, 둘 다 창조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학의 많은 원리가 남녀의 평등을 필연적으로 포함합니다. 섬기는 리더십, 교회와 결혼 안에서의 “피차 복종”,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미 시작된 종말, 새 창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²⁴

3.3.3 남녀 평등에 대한 바울의 명시적 확증

두 곳(갈라디아서 3:28과 고린도전서 11:11)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11-3:28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집단이 – 여성이라는 집단도 포함하여 – 동등하지 않게 대우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에 어긋납니다.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꾸짖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름까지 밝혀 사도 베드로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출신이나 재산이나 성별에 따라 지위나 특권을 나누는 것은 복음에 어긋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적 범주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28은 가장 분명하게 교회 안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나중에 신자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한 것을 뉘우치고 생각을 바꾼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15-16에서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에 대해 말하며, “그의 모든 편지”의 지혜를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락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만 다룰 뿐 교회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단락이 구원에 대해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그 문구에서 나오는 결론을 무시합니다.²⁵ **이 단락은 구원을 교회의 사회적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묶습니다.** 바울의 모든 글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문화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28은 날마다 드리던 한 유대인 기도가 전하던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방인이거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집단들에게는 율법을 공부할 특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구별을 거부한다면, 거기서 그 반대가 나옵니다. 이 모든 집단은 교회의 실제 삶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과 아주 가까운 평행 구절이 고린도전서 11:11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따로 있지 않고²⁶, 여자 없이 남자만 따로 있지 않다.” 바울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확증하는 맥락에서 합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예배의 수직적 차원)와 예언(예배의 수평적 차원)입니다. 조건은 그렇게 하면서 결혼이나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²⁷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적어도 교회의 이런 지도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의 첫 단어인 “그러나”는 헬라어에서 뒤따르는 문장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머리 모양을 요구합니다(11:14-15). 그들의 머리 모양이 부도덕의 표시로 오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에 관한 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에 따른 모든 분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기도와 예언으로 예배를 이끄는 것을 환영합니다.

3.3.4 남편과 아내의 평등에 대한 바울의 확증

결혼에 관한 가장 자세한 논의인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열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정확히 같은 조건과 가능성과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 모든 점에서 그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대합니다. 바울은 이 평등을 강조하려고 대칭을 이루는 균형 잡힌 표현을 거듭 사용합니다. 다음 열두 가지 주제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한다고 강조합니다(2절). 그들은 서로에 대한 부부의 권리를 가지며(3절), 서로의 몸에 대해 상호 권한을 가지고(4절), 서로에 대한 성적 의무를 가집니다(5절). 둘 다 갈라서거나 이혼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10-13절). 둘 다 상대방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14절). 둘 다 상대방이 떠나면 자유롭습니다(15절). 둘 다 상대방을 구원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집니다(16절). 둘 다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28절). 둘 다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도 있고(32절과 34b절),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 마음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33-34a절과 34c절).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씁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7:4). 리처드 헤이스(Richard Hays)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정확히 지적합니다. “바울은 기존의 모든 틀을 깨뜨리는 결혼관을 제시한다. 그것은 배우자들이 피차 복종 가운데 서로 묶여 있는 관계다.”²⁸

에베소서 5:21-22도 비슷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분명히 피차 복종의 일부입니다. 둘 다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합니다.²⁹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 모두에게 서로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서로를 돌보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 곧 아내들과 남편들

모두의 본보기이십니다(5:2). 바울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부를 때 무엇을 뜻하는지는 23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머리"를 "구원자"와 힘주어 같은 것으로 놓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몸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또는 "구주")로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시고"(5:25)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신다"(5:29)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머리"를 헬라어에서 흔히 쓰이던 뜻인 "근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여기서 교회를 위한 사랑과 공급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³⁰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머리"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5:25-29). 아내의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렇게 귀히 여기고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권위의 위계가 아닙니다(5:23).

성경은 여성이 가정에서 이끄는 것을 지지합니다.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똑같이 대하며(에베소서 6:1-2; 골로새서 3:20), 아내들에게 "자기 집을 다스리라"(직역하면 "집의 여주인이 되라", 헬라어 *oikodespoteo*, 디모데전서 5:14)고 권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3.4 바울과 여성: 가부장제의 옹호자?

바울이 남녀 평등을 여러 번 확증하는데도, 그가 교회에서 남성의 지배를 지지한다는 생각이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몇몇 구절에 대한 대중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12("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남성 감독만 규정되어 있다는 해석), 그리고 고린도전서 14:34-35("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입니다. 다음 분석은 이 구절들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의 오류를 드러내고, 바울이 일관된 남녀 평등의 옹호자임을 보여 줍니다.

3.4.1 디모데전서 2:12

디모데전서 2:12는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11-12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자는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우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면서 [그와 결부하여] 남자에게 권위를 함부로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³¹ 문법적으로 이 금지는 당시에 존재하던 상황과 관련됩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동사는 보편적 금지라기보다 현재 효력을 가진 금지를 가리킵니다. 특히 1인칭, 현재, 직설법이라는 이 문법 형태에서 그렇습니다.

BDAG 사전³²(150쪽)은 이 핵심 동사의 뜻을 "독자적인 권위의 지위를 함부로 차지하다"로 규정합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2011년 개정판)은 이 말을 정확하게 "**권위를 함부로 취하다**"(assume authority)로 옮깁니다. 이 동사가 "권위를 함부로 취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에서는 언제나 권한 없이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는 "권위를 행사하다"를 뜻하는 신약의 표준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니다. 위계 옹호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조차 바울 시대의 이 핵심 단어를 조사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다"나 "권위를 가지다"를 가능한 뜻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함부로 취하다"는 제시합니다.³³ 따라서 바울은 여성이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성이 권한 없이 남성에게 권위를 함부로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계기는 에베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계속되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가지, 곧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게 권위를 함부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만 금지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함부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헬라어 *oude*는 “가르치다”와 “권위를 함부로 취하다”라는 두 요소를 묶어 하나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접속사를 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³⁴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자리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함부로 취하는 것을 금지할까요?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여성이 교회의 위임 없이 남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함부로 취했다면, 그것은 남성에게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거기서 나온 근원이기 때문입니다(2:13; 고전 11:8, 11-12 참조).

둘째, 어떤 여성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사탄을 따랐습니다(2:14; 5:13-15 참조). 바울은 이미 거짓 교사들에게 권한 없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1:3). 여기서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제한합니다. 여성들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다고 말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디모데전서 2:12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19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같은 에베소의 여성들이 정당하게 위임받거나 인정받은 권위를 맡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합니다(행 18:26). 누가와 바울은 그리스 관습에 따라 이 부부를 남편의 이름을 먼저 써서 소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행 18:2; 고전 16:19). 그러나 그들의 적극적인 사역을 다루는 모든 단락에서 그들은 – 그리스 관습과 달리 –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릅니다(행 18:18, 26; 롬 16:3). 이것은 그녀가 그들의 공동 사역에서 중요한, 어쩌면 주도적인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긴 두 동역자 명단(디모데후서 4:19-21과 로마서 16:1-16)에서 브리스가에게 가장 먼저 문안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그녀의 이름 가운데 더 존중하는 형태를 쓰는데, 그는 늘 이 형태를 씁니다. 뵤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바울의 사절로서 로마서를 전달했습니다(롬 16:1-2). 그러니 그녀는 당연히 이 편지에 관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의 첫 해설자였고, 그러면서 성인 남성들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2는 인정받은 권위를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뵤뵤 같은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다만 인정받은 권위가 없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함부로 취하는 것을 금지할 뿐입니다.**

3.4.2 감독의 자격 요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바울은 모든 감독이 남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에게 감독이 되기를 열망하라고 격려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디모데전서 3:1). 헬라어에서 “누구든지”는 **성별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이 남성에게처럼 여성에게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성에게

금지된 직분을 열망하라고 여성을 격려하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든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로 남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5절에서 “누구든지”를 되풀이하며, 디도서 1:6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 요건 평행 목록에서도 “누구든지”가 주어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이 옳긴 것과 달리, 디모데전서 3:1-13과 디도서 1:5-9의 교회 지도자 자격 요건에 관한 헬라어 본문에는 남성 대명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2, 12와 디도서 1:6에 따라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헬라어로 직역하면 “한 여자의 남자”입니다. 이 본문은 그저 “남자”라고 하지 않고 “한 여자의 남자”라고 합니다. 이 표현 전체를 하나의 관용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라는 한 단어를 떼어 내어 제멋대로 문맥에서 잘라 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요건을 끌어냅니다. 모든 감독은 “남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가 범죄이니 “도주”도 범죄여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터무니없습니다. 위계 옹호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는 “한 여자의 남자”를, 일부다처자나 성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남자가 감독의 직무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³⁵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여기에 더해 여성도 제외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 관용구에 이중의 뜻을 읽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다처자를 제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이 남자여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를 담는다는 식입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감독에 대한 바울의 다른 요건들 가운데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대부분이 터무니없게 됩니다. 모든 감독이 종들이 딸린 “자기 집”과, “믿을” 만큼 자랐고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여러 “자녀”를 가져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3:11에 여성 집사의 자격이 나오므로, 3:12의 집사 자격 요건에 나오는 같은 표현 “한 여자의 남자”가 여성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자의 남자”에 감독이 남성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읽어 넣는 것은 자의적이며 정당하지 않습니다.³⁶

헬라어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킬 때 문법적으로 남성형을 쓰는 것이 그저 일반적입니다.³⁷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한 뛰어난 목사이자 교수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남자에게 주어진 금지는 대개 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 남성 중심의 표현을 쓰는 규범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³⁸ 마가복음 10:12에서 예수께서 신명기 24장을 해석하신 것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한 여자의 남자”에 표현된 일부일처의 원칙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가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자의 남자”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문자적인 번역은 **“일부일처를 지키는”**입니다. 이 번역은 헬라어의 남성형이 일반적으로 양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관용구의 자연스러운 뜻에 맞습니다.

3.4.3 고린도전서 14:34-35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은 모든 여성에게 가르치거나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여성이 장로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34-35는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성이 잠잠해야 한다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이 구절들의 분명한 진술은 세 번 되풀이됩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강하게 말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35절은 존중받는 여성인 아내에게조차, 여성이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식, 곧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이 금지는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모든 여성이 하는 모든 말에 해당합니다. 단지 제한된 범위의 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고대 세계의 통념에 맞는 것이었습니다.³⁹ 그러나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그가 일관된 남녀 평등의 옹호자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을 – 그리고 성경 자체를 – 일관성 없거나 모순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구절들은 수백 년 동안, 이미 초기 교부들 때부터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 왔습니다. 이 구절들이 같은 장에서 “모두”가 가르치고 예언할 수 있다고 한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5, 24, 26, 31절, 39절 참조). 이 구절들은 바울이 여성이 예언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11:5-6과도 모순됩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남녀 평등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들이 수수께끼 같은 또 다른 이유는 “율법”(14:34)이라는 말의 쓰임이 예외적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곳에서 “율법”을 언급할 때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의 주장과 달리,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서도 여성에게 예배 모임에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며,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여러 번 여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라고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8:11(히브리어 본문의 절 번호로는 68:12)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고린도전서 14:34-35는 바로 앞뒤 문맥과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이 말씀은 거의 이천 년 동안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많은 학자는 고린도전서 14:34-35를 바울의 명령으로 여깁니다. 바울을 (그리고 성경을) 모순 없게 만들려고, 그들은 잠잠하라는 세 겹의 요구를 제한하는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본문의 분명한 뜻과 모순됩니다. 그들은 금지된 말을 특정한 종류의 말로 제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예언을 판단하는 것, 방해가 되는 수다, 방언, 가르침, 예언 같은 것입니다. 이런 좁은 해석들은 본문에 아무 제한 없이 나오는 “잠잠하다”와 “말하다”라는 단어의 넓은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 해석들은 35절에 나오는 금지된 말의 예, 곧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아내들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35절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바로 이런 말을 좁은 해석들은 허용합니다! 따라서 “말하다”의 뜻을 예언 판단, 방해가 되는 수다, 방언, 가르침, 예언 같은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금지된 말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단락에 나오는 세 겹의 (그러므로 최대한으로 강한) 무조건적인 잠잠함의 요구와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금지된 말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34-35절을, 바울이 같은 장과 11장에서 여성이 예언해도 된다고 여러 번 확증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른 곳에서도 남녀 평등을 옹호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답은 이 구절들이 원래 33절 뒤의 지금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발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이른 사본들에서 드러납니다. “서방” 본문의 모든 헬라어 사본에서 34-35절은 40절 뒤에 있습니다.⁴⁰ 나머지

사본들에서는 33절 뒤에 있습니다. 필사자가 이 구절들을 33절 뒤에서 40절 뒤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긴다는 것은 전혀 전형적이지 않고 흔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사본 가운데 비슷한 길이의 단락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렇게 멀리 옮겨진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흔했던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필사자가 베끼다가 실수로 단어나 문장을 빠뜨린 것을 알아차리면, 그 본문을 여백에 덧붙여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는 마태복음에서 옛 언설체(대문자체) 본문이 여백에 적혀 있는 곳이 스무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도 똑같이 흔했습니다. 신약 사본을 베끼는 사람은 여백에서 발견한 본문을, 자기 생각에 가장 잘 맞는 자리의 본문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정된 편지를 새로 타자하는 비서가 여백의 메모를 편지 본문 안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 28판이 이 관습을 보여 줍니다. 바티칸 사본의 이 스무 개 여백 본문 가운데 열일곱 개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마태복음 사본에서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필사상의 개연성, 곧 필사자가 가장 그럴듯하게 무엇을 했겠느냐는 물음은 다음을 지지합니다. 누군가 여성이 잠잠해야 한다는 명령을 먼저 어느 사본의 여백에 적었습니다. 그 뒤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본문으로 넣었습니다.⁴¹ 결국 상식만으로도, 다른 예가 하나도 없는 이례적인 일보다 흔한 일이 더 그럴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백 본문이므로 그 뜻은 문맥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그 목적도 알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백의 이 본문이 바울이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지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이거나 실천적인 논증에 덜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37절) 염두에 둔 거짓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14:34-35를 직접 여백에 적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의 글씨가 컸기 때문에 보통의 여백에는 그렇게 많은 본문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11; 데살로니가후서 3:17). 다만 그가 대필자에게 그 본문을 여백에 적으라고 지시했을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압도적인 문화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어떤 독자라도 34-35절을 여백에 적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예언해야 한다는 바울의 거듭된 권고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왜, 언제 여백에 적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가 그것에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규범적인 신학이나 교회 실천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경 번역본들은 이 여백 메모를 그것이 거의 확실하게 비롯된 곳, 곧 여백에, 되도록이면 각주에 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여백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해 내려온 본문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큰 본문 덩어리가 여러 사본에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자리에 나타나면서도 그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백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상의 증거가 성경의 다른 어떤 단락을 똑같이 여백 본문으로 분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무오성⁴²을 굳게 지키는 대부분의 학자는, 많은 성경에 인쇄되어 있더라도 어떤 단락들은 원래 본문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구절을 여백으로 옮기는 일이 도대체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위계 옹호자들조차 어떤 단락들은 – 더 긴 단락들도 – 원래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요한복음 7:53-8:11)가 여기에 속합니다.⁴³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명령은 요한복음 7:53-8:11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며, 그 공통점들은 이 명령도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⁴⁴ 여성의 잠잠함에 관한 단락이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가정에는 간음한 여자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⁴⁵ 이 모든 증거를 생각하면, J. A. 피츠마이어(J. A. Fitzmyer)에 따르면 **“오늘날 해석자들의 다수”가 고린도전서 14:34-35를 후대의 첨가로 여긴다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고든 피(Gordon Fee) 같은 대표적인 복음주의 본문비평학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⁴⁶

어쩌면 바울이 정말로 대필자에게 34-35절을 여백에 적으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과 그의 가르침 사이의 모순은 이것을 보여 줍니다. 그는 아마도 36-37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책망을 할 때 염두에 둔 거짓 예언의 내용을 적어 두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났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기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누가 왜 이 본문을 썼든 간에, 고린도전서 14:34-35는 거의 확실하게 먼저 여백에 적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중에 덧붙였을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로는 의심스럽습니다.

3.5 결론

남녀 평등에 관한 성경의 진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남자와 나란히 또는 그들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여성들에 관한 진술은 분명하고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사람은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바윗덩이와 눈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다 피할 거야. 하나도 나를 맞히지 못할 거야.” 눈사태 전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지위와 권위에 대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겸손히 권위를 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에서 남녀 평등을 지지하는 성경의 증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 평등은 위에서 다룬, 여성에 관해 명시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서로” 구절과 사실상 성경의 모든 명령과 격려에 스며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과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아무 유보 없이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만든 성 역할의 경계를 넘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저자 소개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 박사(PhD) 학위를 받았으며, 신약 본문비평과 예수의 비유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의 책 **Man and Woman, One in Christ**(Zondervan, 2009)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음 학교들의 신약학과에서 가르쳤습니다.

University of Cambridge,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Bethel Seminary, Fuller Seminary Northwest.



4 추천 도서

4.1 독일어 도서

어떤 책들은 (현재) 중고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Bielefeld, Frauke. Die Sache mit der Rippe: Die himmlische Idee von den Geschlechtern. Asslar, 2007.

Bushnell, Katharine C. Wach auf Eva! Erkenne die biblische Wahrheit von Gottes ursprünglicher und unveränderter Absicht der vollen Gleichstellung der Frau. 주문: christian@rvbeese.de

Cunningham, Loren, David Joel Hamilton. Warum nicht! Frauen in christlich-kirchlichen Führungspositionen. Altensteig, 2014.

Haubeck, Wilfrid, Wolfgang Heinrichs (편). Pastorinnen: Aspekte zu einem aktuellen Thema. Theologische Impulse. Witten: Bundes-Verlag, 2008.

Krüger, Hartmut. Frauen im Pietismus: Ihr Dienst – ihre Verantwortung – ihr Einfluss. Marburg: Francke, 2005.

Ronsdorf, Hans-Jörg. Frauen, vergebt uns!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Was wir Männer wiedergutmachen müssen. Zur Rolle von Frau und Mann. 제4판, 2023. www.hans-joerg-ronsdorf.de

Schirmmacher, Thomas. Paulus im Kampf gegen den Schleier. Nürnberg: VTR, 2002.

Schmalenbach, Hanna-Maria. Frausein zur Ehre Gottes – im Kontext verschiedener Kulturen. Schwarzenfeld: Neufeld, 2007.

Wunderli, Armin. "Ihm gegenüber": Gleichberechtigung in der Kirche und was die Bibel dazu (nicht) sagt. KSH.Digital, 2022.

4.2 독일어 논문

Jantsch, Torsten. "Die Frau soll Kontrolle über ihren Kopf ausüben (1Kor 11,10). Zum historischen, kulturellen und religiösen Hintergrund von 1Kor 11,2–16". 97–144쪽, 수록: **Frauen, Männer, Engel: Perspektiven zu 1Kor 11,2–16**. Torsten Jantsch 편. Biblisch-Theologische Studien 1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5.

Herter, H. "Effeminatus". **Reallexikon für Antike und Christentum: Sachwörterbuch zur Auseinandersetzung des Christentums mit der antiken Welt** 제4권(1959년), 620–650단. RAC. 전31권. Stuttgart: Anton Hiersemann, 1950–2021.

4.3 영어 도서

Barr, Beth Allison.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How the Subjugation of Women Became Gospel Truth**. Grand Rapids, MI: Baker, 2021.

Bartlett, Andrew. **Men and Women in Christ: Fresh Light from the Biblical Texts**. London: InterVarsity, 2019.

Bird, Michael F. **Bourgeois Babes, Bossy Wives, and Bobby Haircuts: A Case for Gender Equality in Ministry**. Fresh Perspectives on Women in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2.

Clouse, Bonnidell, and Robert G. Clouse, eds. **Women in Ministry: Four Views**. With contributions from Robert D. Culver, Susan Foh, Walter Liefeld & Alvera Mickelse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9.

Dale, Felicity. *The Black Swan Effect: A Response to Gender Hierarchy in the Church*. n.p.: Kingdom Heart, 2014.

Epp, Eldon Jay. *Junia: The First Woman Apostle*. Minneapolis, MN: Fortress, 2005.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7, rev. ed. 2014.

Giles, Kevin. *Jesus and the Father: Modern Evangelicals Reinvent the Doctrin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Gupta, Nijay K. *Tell Her Story: How Women Led, Taught, and Ministered in the Early Chur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23.

Hill, Graham Joseph. *Holding Up Half the Sky: A Biblical Case for Women Leading and Teaching in the Church*. Eugene, OR: Cascade Books, 2020.

Lee, Dorothy A. *The Ministry of Women in the New Testament: Reclaiming the Biblical Vision for Church Leadership*. Grand Rapids, MI: Baker, 2021.

McKnight, Scot. *The Blue Parakeet: Rethinking How You Read the Bible*. 2nd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8.

Mickelsen, Alvera, ed. *Women, Authority & the Bibl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6.

Osiek, Carolyn and Margaret Y. MacDonald with Janet H. Tulloch. *A Woman's Place: House Churches in Earliest Christianity*. Minneapolis, MN: Fortress, 2006.

Peppiatt, Lucy.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Fresh Perspectives on Disputed Text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9.

Peppiatt, Lucy. *Women and Worship at Corinth: Paul's Rhetorical Arguments in 1 Corinthians*. Eugene, OR: Cascade Books, 2015.

Payne, Philip B. *The Bible vs. Biblical Womanhood: How God's Word Consistently Affirms Gender Equalit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23. 249 pages.

Payne, Philip B.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511 pages.

Payne, Philip B., and Vince Huffaker. *Why Can't Women Do That? Breaking Down the Reasons Churches Put Men in Charge*. Boulder, CO: Vinati Press, 2021. 175 pages.

Pierce, Ronald W., Cynthia Long Westfall, and Christa L. McKirland, eds.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Biblical, Theological, Cultural & Practical Perspectives*. 3rd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21.

Williams, Terran. *How God Sees Women: The End of Patriarchy*. Cape Town, South Africa: Spiritual Bakery, 2022.

Witherington, Ben, III. *Women and the Genesis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Witt, William G. *Icons of Christ: A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for Women's Ordinat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20.

4.4 영어 논문

Daids, Peter H. "A Silent Witness in Marriage." Pages 224–238 in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Complementarity Without Hierarchy*. Edited by Ronald W. Pierce and Rebecca Merrill Groothui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4.

Giles, Kevin. "The Genesis of Confusion: How 'Complementarians' Have Corrupted Communication." *Priscilla Papers* 29, 1 (2015): 22–29.

Hugenberger, Gordon P. "Women in Church Office: Hermeneutics or Exegesis? A Survey of Approaches to 1 Tim 2:8-15."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5, 3 (September 1992): 341–360.

Kroeger, Catherine Clark. "The Classical Concept of Head as 'Source'." Pages 267–283 in Gretchen Gaebelein Hull, *Equal to Serve: Women and Men in the Church and Home*. Old Tappan, NJ: Revell, 1987.

Payne, Philip B. "1 Tim 2.12 and the Use of οὐδέ to Combine Two Elements to Express a Single Idea." *New Testament Studies* 54, 2 (2008): 235–253. https://www.pbpayne.com/wp-admin/Payne2008NTS-oude1Tim2_12.pdf

Payne, Philip B. "The Authenticity of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its Interpretation." Pages 163–207 in *Gospel Perspectives: Studies of History and Tradition in the Four Gospels*. Edited by R. T. France and David Wenham. Sheffield: JSOT, 1980.

Payne, Philip B. "The Authenticity of the Parables of Jesus." Pages 329–344 in *Gospel Perspectives II*. Edited by R. T. France and David Wenham. Sheffield: JSOT, 1981.

Payne, Philip B. "A Critique of Thomas R. Schreiner's Review of Man and Woman, One in Christ." <https://www.pbpayne.com/a-critique-of-thomas-r-schreiners-review-of-man-and-woman-one-in-christ/>

Payne, Philip B. "Critique of Vaticanus Distigme-obelos Denials." <https://www.pbpayne.com/critique-of-vaticanus-distigmeobelos-denials/>

Payne, Philip B. "Fuldensis, Sigla for Variants in Vaticanus, and 1 Cor 14.34–5." *New Testament Studies* 41 (1995): 240–262. <https://www.pbpayne.com/wp-admin/Payne1995NTSFuldensis.pdf>
manuscript photographs <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23/03/Fuldensis-1->

Cor-14-15-photoscaled.jpeg

[https://www.pbpayne.com/wp-](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23/03/Vaticanus-1-Cor-14.33-36-Jn-7.52-8.12-13-photos-scaled.jpeg)

[content/uploads/2023/03/Vaticanus-1-Cor-14.33-36-Jn-7.52-8.12-13-photos-scaled.jpeg](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23/03/Vaticanus-1-Cor-14.33-36-Jn-7.52-8.12-13-photos-scaled.jpeg)

Payne, Philip B. "The Interpretation of 1 Timothy 2:11-15: A Surrejoinder." Pages 96-115 in Part II of *What Does the Scripture Teach About the Ordination of Women?* A study commissioned by the Committee on Ministerial Standing. Minneapolis, MN: 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America, 1986. <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20/07/Payne-Moo-Surrejoinder-EFCA-Ministerial.pdf>

Payne, Philip B. "Is 1 Corinthians 14:34-35 a Marginal Comment or a Quotation? A Response to Kirk MacGregor." *Priscilla Papers* 33, 2 (Spring 2019): 24-30. <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21/10/Is-1-Cor-14.34-35-Marginal-Comment-or-Quotation.pdf>

Payne, Philip B. "Libertarian Women in Ephesus: A Response to Douglas J. Moo's Article, '1 Timothy 2:11-15: Meaning and Significance.'" *Trinity Journal* 2 (1981): 169-197.

Payne, Philip B. "Ms. 88 as Evidence for a Text Without 1 Cor 14.34-5." *New Testament Studies* 44 (1998): 152-158. <https://www.pbpayne.com/wp-admin/Payne1998NTSMS88.pdf>

Payne, Philip B. "Οὐδέ Combining Two Elements to Convey a Single Idea and 1 Timothy 2:12: Further Insights." Pages 24-34 in *Missing Voices*. Minneapolis: CBE International, 2015. <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15/07/Payne-OUDE-CBE-ETS-final.pdf>

Payne, Philip B. "The Seeming In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Sower." *New Testament Studies* 26 (1979-1980): 564-568.

Payne, Philip B. "The Text-Critical Function of the Umlauts in Vaticanus, with Special Attention to 1 Corinthians 14.34-35: A Response to J. Edward Mille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7, 1 (2004): 105-112.

Payne, Philip B. "Vaticanus Distigme-obelos Symbols Marking Added Text Including 1 Corinthians 14.34-5." *New Testament Studies* 63, 4 (October 2017): 604-625.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new-testament-studies/article/vaticanus-distigmeobelos-symbols-markingadded-text-including-1-corinthians-14345/A5FC01A6E14A2A1CF1F514A9BF93C581>

Payne, Philip B. "What About Headship? From Hierarchy to Equality." Pages 140-161, 226-232 in *Mutual by Design: A Better Model for Christian Marriage*. Edited by Elizabeth Beyer. Minneapolis: CBE International, 2017. <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18/06/what-about-headship-ch7.pdf>

Payne, Philip B. "What Does *Kephale* Mean in the New Testament? Response." Pages 118-132 in *Women, Authority & the Bible*. Edited by Alvera Mickelse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6.

Payne, Philip B. "Wild Hair and Gender Equality in 1 Corinthians 11:2-16." *Priscilla Papers* 20, 3 (Summer 2006): 9–18. https://www.pbpayne.com/wp-admin/Payne2006PP1Cor11_2-16.pdf

Payne, Philip B. and Paul Canart. "Distigmai Matching the Original Ink of *Codex Vaticanus*: Do They Mark the Location of Textual Variants?" Pages 199–226 in *Le manuscrit B de la Bible (Vaticanus graecus 1209): Introduction au fac-similé, Actes du Colloque de Genève (11 juin 2001), Contributions supplémentaires*. Edited by Patrick Andrist. Lausanne, Switzerland: Éditions du Zèbre, 2009. https://www.pbpayne.com/wp-content/uploads/2010/07/HTB07_199_226.pdf

Payne, Philip B. and Paul Canart. "The Originality of Text-Critical Symbols in *Codex Vaticanus*." *Novum Testamentum* 42, 2 (2000): 105–113. https://www.pbpayne.com/wp-admin/Payne2000NovT-Vaticanus_umlauts_1Cor14_34-35.pdf

Schmid, Ulrich. "Conceptualizing 'Scribal' Performances: Reader's Notes." Pages 49–64 in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Edited by Klaus Wachtel and Michael W. Holmes. Atlanta: SBL, 2011.

Spencer, Aída Besançon. "Leadership of Women in Crete and Macedonia as a Model for the Church." *Priscilla Papers* 27, 4 (Autumn 2013): 5–15.

Thompson, Cynthia L. "Hairstyles, Head-coverings, and St. Paul: Portraits from Roman Corinth." *Biblical Archaeologist* 51, 2 (June 1988): 99–115.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 – 우리 남자들이 바로잡아야 할 것들.

독일어판 제4판(2023년 7월), 약 300쪽, 페이퍼백 13.80유로, 서점에서 ISBN 978-3-9820715-5-8로 주문하거나 저자에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hj-ronsdorf@t-online.de 또는 여기: www.hans-joerg-ronsdorf.de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의 축약판(독일어판, 제3판, 80쪽)은 저자에게서 페이퍼백으로 3.80유로에, 아마존에서 킨들 전자책으로 2.90유로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보십시오.

KURZ
VERSION

FRAUEN VERGEBT UNS



MANN UND FRAU IN EHE
UND GEMEINDE
KURZ. EINLEUCHTEND. HILFREICH.
HANS-JÖRG RONS DORF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 1855–1946)은 용기 있고 재능 있는 하나님의 종이였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교사, 십자가의 대사, 개혁가, 저술가이자 연설가였고, 일곱 개 언어를 구사하며 고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뛰어나고 독창적인 학자였습니다. 부시넬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일을 하려고 의학을 떠났습니다. 19세기 여성 운동의 기독교 여성 금주 연합(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아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부시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 여성의 사회적·영적 예측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896년에

그녀는 WCTU를 떠나, 남은 생애를 글을 쓰고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라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독일어판은 서점이나 발행인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christian@rvbeese.de

주

1.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2009; Why Can't Women Do That? Breaking Down the Reasons Churches Put Men in Charge, 2021; The Bible vs. Biblical Womanhood: How God's Word Consistently Affirms Gender Equality, 2023 (「추천 도서」, 46쪽도 보십시오).
2. Vol 29, Nr.1, 2015년 겨울.
3. 4세기 라오디게아 공의회와 교회법 제11조. 성경 밖의 다른 자료에서도 **presbytiditas**는 장로인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외경 **마태행전(28)**과 3세기와 4세기의 비문들("Angelos Epiktous Presbytidos"와 "여성 장로들", gynaikôn presbytidôn)에서 그렇습니다. 버나뎃 J. 브루튼(Bernadette J. Brooten), Women Leaders in the Ancient Synagogue: Inscriptional Evidence and Background Issues (고대 회당의 여성 지도자들: 비문의 증거와 배경 문제), BJS 36 (Atlanta: Scholars Press, 1982), 41-46쪽은 여성 장로를 언급하는 비문 여섯 개를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장로 사라 우라(Sara Ura)가 잠들다"입니다. 이 예들은 바울이 여성 장로들을 가리킬 수 있었고, 교회 역사 초기에 여성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참조: Philip B. Payne, The Bible vs. Biblical Womanhoo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23), 163-164쪽.
4. "1 Timothy 2:11-15: Meaning and Significance", Trinity Journal 1 (1980), 62-83쪽.
5. Philip B. Payne, "Libertarian Women in Ephesus: A Response to Douglas J. Moo's Article, '1 Timothy 2:11-15: Meaning and Significance'", Trinity Journal 2 (1981), 169-197쪽.
6. 또는 동등한 권리, 동등한 지위, 동등한 가치
7. Philip B.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Grand Rapids: Zondervan, 2009), 41-54쪽은 창세기 1-3장에서 남성의 권위를 읽어 내려는 시도들의 약점을 보여 줍니다.
8. 열여섯 번: 출애굽기 18:4; 신명기 33:7, 26, 29; 시편 20:2; 33:20; 70:5; 89:19; 115:9, 10, 11; 121:1, 2; 124:8; 146:5; 호세아 13:9. 이 표현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Aida B. Spencer, Beyond the Curse: Women Called to Ministry (Grand Rapids: Baker, 1985), 23-29쪽을 보십시오.
9. Ludwig Koehler, Walter Baumgartner, Johann Jakob Stamm,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이하 HALOT), 전 5권 (Leiden: Brill, 1994-2000), 2권 (1995): 811-812쪽.
10. 이사야 30:5; 에스겔 12:14; 다니엘 11:34. Spencer, **Beyond the Curse**, 23-29쪽은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11. Raymond C. Ortlund Jr., "Die Gleichheit von Mann und Frau und Das Hauptsein des Mannes – 1. Mose 1-3", Die Rolle von Mann und Frau in der Bibel (Friedberg: 3L-Verlag, 2008), 115-137쪽의 견해와 반대됩니다.
12. 또는 "지도자, 인도자, 군주 ... 장교 ... 도시의 시장 ... 궁정 관리 ... 가장 ... 존경받는 사람 ... 제의의 직무자 ... 대제사장 ... 감독자 ... 우두머리 ...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HALOT 2:667-68에 따름). 이 단어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에 쓰입니다(사무엘상 9:16; 13:14; 열왕기상 1:35).
13. Payne, Man and Woman, 41-54쪽은 창조에서 남성의 권위를 찾아내려는 시도들을 비판합니다.
14. **창세기의 어떤 내용도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권위를 주는 "창조 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보다 먼저 창조된 식물과 동물에 대한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에게 지도권을 맡기시는 일은 자주 되풀이되며, 장자권이라는 고대 근동의 관습에 어긋납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 에서보다 야곱, 형들보다 요셉, 아론보다 모세, 형들보다 다윗 등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말할 때(고린도전서 11:8, 12, 그리고 디모데전서 2:13에서 암시적으로), 그는 여자는 남자든 자기의 근원에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을 보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고린도전서 11:3, 12). 참조: Payne, Man and Woman, 113-139쪽, 402-50쪽.
15. John Piper, Wayne Grudem, "Menschlichkeit, Verständlichkeit und Hoffnung - die Kontroverse und die Sache Christi", Die Rolle von Mann und Frau, 493-520쪽, 여기서는 502쪽.
16. George W. Knight III는 이것이 "독재적이고 사랑 없는 방식의 **다스림**"이라고 주장합니다("Die Familie und die Gemeinde: Wie sollte biblisches Mannsein und Frausein in der Praxis aussehen?", Die Rolle von Mann und Frau, 417-432쪽). Piper와 Grudem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머리 됨"이 아니라 "타락한 **다스림**"

이라고 주장하며(“Menschlichkeit”, 502쪽), Wayne Grudem은 “창세기 3:16에 암시된 그런 가혹한 다스림”에 대해 말합니다(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Sisters: Multnomah, 2004], 123쪽, 주 45; 참조: 40쪽, 43쪽). Grudem은 사전적 근거 없이 이 “다스림”을 “가혹하다”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쪽 앞에서(38쪽, 주 27) 그는 스스로 한 가지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전적 근거 없이, 같은 구절의 다른 단어가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욕구”를 뜻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17. HALOT 2:647-48과 Francis Brown, S. R. Driver,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6), 605쪽.
18. 예: 레위기 18:3; 20:23; 시편 106:35.
19. Richard Bauckham, *Gospel Women: Studies of the Named Women in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2002)를 보십시오.
20.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제2판; Grand Rapids: Eerdmans, 1952), 296쪽은, 위-클레멘스 설교집(Pseudo-Clementine Homilies)이 야고보를 “감독들의 감독”이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르게 세워진 모든 곳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21. 바울은 사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고린도전서 9:1; 15:8; 갈라디아서 1:1, 15-17),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며, 선교 사역의 수고와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로마서 1:1-5; 고린도전서 1:1; 15:10;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서 16:7). 이 사역은 열매를 맺고(고린도전서 9:1; 15:10)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입증됩니다(고린도후서 12:11-12). 어떤 번역들은 로마서 16:7에서 이 이름을 남자 이름 “유니아스”(Junias)로 만듭니다. 그러나 증거는 압도적으로 여자 이름 “유니아”(Junia)를 지지합니다. **교회의 첫 천 년 동안의 믿을 만한 모든 증언은 한결같이 유니아를 여자로 봅니다.** Eldon J. Epp, Junia: The First Woman Apostle (Minneapolis: Fortress, 2005), 23–81쪽의 탁월한 연구를 보십시오.
22. 헬라어 **prostatis**(“지도자”, 앞에 서는 여성)는 “서열상 앞에”와 “서다”를 뜻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신약성경의 관련 단어들의 모든 뜻은 지도와 관련됩니다. 디도서 3:8, 14의 “관심을 두다”라는 뜻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C. K. Barrett, *The Epistle to the Romans* (New York: Harper & Row, 1957), 283쪽은 “**후원자**”(Patron)라는 해석에 반대합니다. “보비가 바울과 그런 관계에 있었을 수는 없다(그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2:28)”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일반적인 그리스 문헌과 마찬가지로, “은인”이라는 개념이나 그의 행위를 보통 다른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들은 “좋은”과 “행위”를 뜻하는 흔한 헬라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25; 사도행전 4:9; 10:38; BDAG 405; LSJ 712; Payne, *Man and Woman*, 62–63쪽 참조.
23. 특히 Epp, Junia, 23–44, 69–78쪽과 Bauckham, *Gospel Women*, 165–186쪽을 보십시오.
24. 이에 대해서는 Payne, *Man and Woman*, 69–76쪽을 보십시오.
25. Payne, *Man and Woman*, 79–104쪽은 갈라디아서 3:28의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맥락에서 이 본문을 교회 생활과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42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26. 표준 헬라어 사전들은 (어떤 성경들이 쓰는) “독립적인”이라는 번역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은 “그러나”가 요구하는 대조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은 특별히 “주 안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7. Payne, *Man and Woman*, 113–215쪽과 Philip B. Payne, “Wild Hair and Gender Equality in 1 Corinthians 11:2-16”(풀어 헤친 머리와 성 평등: 고린도전서 11:2-16), *Priscilla Papers* 20, no. 3 (2006년 여름): 9–18쪽을 보십시오.
28.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John Knox, 1997), 131쪽.
29. 위계 옹호자인 조지 W. 나이트 3세(George W. Knight III)조차 이에 동의합니다. “Ehemänner und Ehefrauen: Eine Parallele zu Christus und der Gemeinde – Epheser 5,21-33 und Kolosser 3,18-19”, in *Die Rolle von Mann und Frau*(독일어), 203–220쪽을 보십시오.
30. Payne, *Man and Woman*, 117–137쪽은 “근원”이 헬라어에서 “머리”(kephale)의 흔한 뜻이었지만, “권위”나 “지도자”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31. Payne, *Man and Woman*, 319–397쪽은 이 번역이 옳다는 것을 변호합니다.
32.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제3판 (BDAG).
33. Henry Scott Baldwin, “An Important Word: αἰθεντέω in 1 Timothy 2:12”, in *Women in the Church: An Analysis and Application of 1 Timothy 2:9-15* (Andreas J. Köstenberger와 Thomas R. Schreiner 편; 제2판; Grand Rapids: Baker, 2005), 49–51쪽. **2:12의 단어가 분명히 “권위를 행사하다”를 뜻하는 가장 이른 용례는 주후 370년경의 것입니다(바실리우스, 『서신』 69, 45행).** 바울 시대에 이 단어는 “지배하다”를 뜻하거나, 인정받거나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함부로 취하다”를 뜻할 수 있었습니다. **Payne, Man and Woman, 361–397쪽은 이 동사의 용례와 뜻, 그리고 디모데전서 2:12에서의 쓰임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34. Philip B. Payne, "1 Tim 2:12 and the Use of οὐδέ to Combine Two Elements to Express a Single Idea", NTS 54 (2008): 235–253쪽, 그리고 Philip B. Payne, "Οὐδέ Combining Two Elements to Convey a Single Idea: Further Insights", in Missing Voices: Broadening the discussion on men, women, and ministry (Minneapolis: Christians for Biblical Equality, 2014), 24–34쪽.
35. 예를 들어 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us), 디모데전서 3:2에 관한 설교; 요세푸스와 랍비 문헌을 인용하는 Grudem, Evangelical Feminism, 80쪽. 그루뎀(Grudem)은 "한 여자의 남자"가 "(예수나 바울 같은) 미혼 남자가 장로가 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뜻이 아니다"라고 옳게 논증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한 여자의 남자"는 모든 장로를 묘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남자"가 "모든" 집사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여성을 제외한다는 그루뎀의 주장(263쪽, 주 107)과 모순됩니다. 그루뎀은 디모데전서 3:12의 헬라어에 그런 단어가 없는데도 "모든"을 잘못 덧붙입니다. Douglas J. Moo, "The Interpretation of 1 Timothy 2:11-15: A Rejoinder", TJ 2 NS (1981): 198–222쪽, 211쪽은 "한 여자의 남자"가 반드시 "미혼 남성이나 여성을 직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이 표현이 분명히 여성을 배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칠 것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가 하는 말, "이것은 바울이 글을 쓸 때 남자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한다"는 오직 한 가지 의미에서만 맞습니다. 바울은 일부다처자나 신실하지 못한 남자를 배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감독이 남자여야 한다는 요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omas R. Schreiner**, "Philip Payne on Familiar Ground: A Review of Philip B.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Journal of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2010년 봄): 33–46쪽, 35쪽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장로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진술을 포함하여,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6-9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 요건은 그 자체로 반드시 여성이 장로로 섬기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6. 이 목록의 다른 어떤 항목도 이중의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Payne, Man and Woman, 445–459쪽 참조.
37. 예를 들어 여기와 같은 주어 "누구든지"(tis)를 쓰는 경우: 마가복음 8:34; 9:35; 누가복음 9:23; 14:25-26; 요한복음 7:37-38; 9:31; 11:10; 12:26, 26, 47; 14:23; 로마서 8:9; 고린도전서 3:12-15; 3:17; 5:11; 8:3, 10; 10:28; 14:24-25; 고린도후서 10:7; 갈라디아서 6:3-5; 데살로니가후서 3:14; 디모데전서 5:8; 6:3-5; 디모데후서 2:21; 야고보서 1:5-8; 요한계시록 3:20.
38. Gordon P. Hugenberger, "Women in Church Office: Hermeneutics or Exegesis? A Survey of Approaches to 1 Timothy 2:8-15", JETS 35, no. 3 (1992): 341–360쪽, 360쪽, 주 78.
39. Armin D. Baum, "Paul's Conflicting Statements on Female Public Speaking (1 Cor. 11:5) and Silence (1 Cor. 14:34-35): A New Suggestion", Tyndale Bulletin 65.2 (2014): 252–271쪽 참조.
40.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rev. ed.;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4), 699쪽; 주후 375년경의 암브로시아스터(Ambrosiaster)를 포함합니다.
41. 이것은 성경의 원래 본문을 정하는 기본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이 원리는 벵엘(Bengel)의 제1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본문이 생겨난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원래 본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J. C. F. Steudel 편, Gnomon of the New Testament by John Albert Bengel (James Bandinel 번역; 재판 Edinburgh: T. & T. Clark, 1858), 제1권, 13–19쪽을 보십시오.
42.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영감은 성경의 원본 본문에만 해당하며, 그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존하는 사본들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음을 확언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성경의 사본과 번역본이 원본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언한다." 마찬가지로 제6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이 원본의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확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영감이 원래의 말씀에 대해서만 확언되며, 후대의 첨가에 대해서는 확언되지 않습니다.
43. D. B. Wallace, "Reconsidering 'The Story of Jesus and the Adulteress Reconsidered'", NTS 39 (1993): 290–296쪽;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333쪽은 이렇게 씁니다. "그것[요한복음 7:53-8:11]을 담고 있는 [사본들]은 본문 이문의 빈도가 꽤 높다. ... 배치 위치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 구절들이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해 준다." 그런데 같은 카슨(Carson)이 같은 원리를 고린도전서 14:34-35에 적용한 피(Fee)의 작업을 모순되게도 "약하고 사변적"이라고 부릅니다. "'Silent in the Churches': On the Role of Women in 1 Corinthians 14:33b-36", in: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140–153쪽, 여기서는 142쪽.
44. 두 본문 모두에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많은 본문 이문, 사본마다 다른 배치 위치, 그 책의 저자에게 전형적이지 않은 어휘 사용, 생각의 흐름이나 주제의 단절, 그리고 필사자들이 본문 문제를 알아차렸음을 보여 주는 여백 기호나 여백 메모입니다. 게다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본인 바티칸 사본에는 두 경우 모두 본문 이문을 가리키는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단락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Payne, Man and Woman, 232–256쪽이 이런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45. 이 단락은 이 장의 단어들을 낱설고 바울답지 않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목적과 모순됩니다. “율법에 이른 것같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신학이나 문체에 맞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편을 들어 주는 약한 사회 집단(여성)을 복종하게 합니다. 어휘가 후대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2:11-15의 어휘와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구절들뿐입니다. 게다가 이 단락은 그런 첨가의 그럴듯한 동기, 곧 여성을 침묵시키려는 동기에 들어맞습니다. Payne, *Man and Woman*, 257–265쪽이 이런 차이점들을 설명합니다.
46. Joseph A. Fitzmyer, *First Corinthians* (New Haven: Yale, 2008), 500쪽. Kim Haines-Eitzen, *The Gendered Palimpsest: Women, Writing, and Representation in Early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2012), 62쪽은 이것을 “오늘날 거의 모든 학자”의 견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예순두 편의 본문 연구가 이것이 후대의 첨가라고 논증합니다. Payne, *Man and Woman*, 226–227쪽; 그 근거는 225–267쪽; Fee, *First Corinthians*, 780–792쪽 참조.